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4. 17.(목) 10:00 < 4.17.(목) 석간 > 배포 2025. 4. 16.(수)

산업부·특허청, 기술보호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 다져

- 제3차「지식재산과 경제안보」포럼 공동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월 17일(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3차「지식재산과 경제안보」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부터 이어진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시리즈 포럼의 마지막 회의로, 1차 포럼에서는 지식재산권과 통상 전략, 2차 포럼에서는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전반을 논의한 데 이어, 3차 포럼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고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활용한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산업부·특허청), 학계, 로펌 및 유관기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보호법, ▲지식재산, ▲특허빅데이터, ▲비밀특허제도 등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건수가 100여건에 달하고,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약 23조원*에 이르는 등 기술유출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기술보호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기업 자체 추산액(국정원)

특히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는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인 특허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관리, 첨단기술 수출통제, 지식재산 규범 정립 등의 분야에서 산업부의 법·제도 운영 경험과 특허청의 정보·분석 역량이 결합된다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의 철저한 보호가 곧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최신화, ▲기업·대학·연구소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식별, ▲기술유출 경로 파악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 또한 “특허빅데이터 활용 및 견고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전략물자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 산업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책임자	과 장 손용하 (044-203-4850)
		담당자	사무관 이가영 (044-203-4856)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주연 (042-481-5213)
		담당자	사무관 김지언 (042-481-517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 개요

1. 개요

□ (일 시) 4.17(목), 10:00~12:00(120′)

□ (장 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아이리스홀(2F)

□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 (참석자) 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 무역안보정책관, 특허청특허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학계, 로펌, 유관기관 등 20여명

2.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특허청장
10:05~11:05	(60′)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실태와 기술보호 강화 방안	안성진 교수 (성균관대)
		대한민국 기술의 힘, 지식재산으로 보호한다	손창호 본부장 (지식재산보호원)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안보 강화 방안	정병태 본부장 (특허기술진흥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비밀특허제도 현황	전정화 부연구위원 (지식재산연구원)
11:05~11:55	(50′)	자유토론	참석자 전체 (주재 : 통상교섭본부장)
11:55~12:00	(5′)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특허청장

* 모두발언까지 공개